



**한** 국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사회 양극화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보장부문에서 수많은 난제를 경험한 외국의 정책 선례 및 현황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알차고 신속한 정보매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사회보장제도만을 다루는 전문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보장동향』을 계간으로 상재하여 심도 있는 지식과 발 빠른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간호의 '심층보기'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요모조모 살펴보았으며, '정책조명'에서는 선진국 복지정책의 최근 발자취와 이정표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주요 국제기구의 복지관련 뉴스를 소개하고 해외주재 연구원, 실무자 및 공무원들로부터 최신 소식을 받아 실었습니다.

『국제사회보장동향』이 복지 현안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서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국** 제사회보장동향을 발간하게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 경의와 감채를 보냅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최신동향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본 동향지 발간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경제성장이 지난 자리를 둘러보고 그 혜택이 미처 닿지 않은 길목길목, 구석구석의 사정을 살펴 모두를 이롭게 할 방안을 구해 펼치는 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사업에서 외국의 경험을 꼼꼼히 따져 우리가 나아갈 길을 헤아려 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유익

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당파적 입장에 서서 각 국의 사회복지정책 흐름을 가감 없이 읽어 진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부단한 자기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제를 선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균형을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보장동향』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계간지의 필수덕목 가운데 하나인 '긴 호흡'은 지키되 잡지의 필요조건인 '최신성'도 유지하기 바랍니다. 전문지로서의 '무게'를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읽을거리로서 독자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적당한 '체중조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두루두루 읽혀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직한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號를 더할수록 더 훌륭한 정보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제사회보장동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최송화